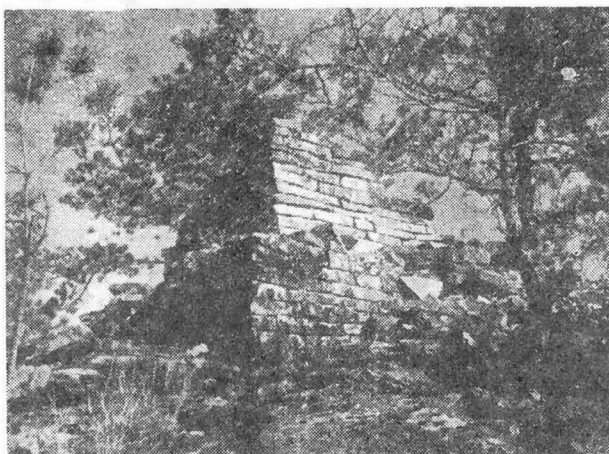


의 圓孔이 있어 擦竿이 貫通하였던 것으로 推定되었다. 塔은 많이 傾斜되었고 破損이 極甚함에 時急한 保存對策의 樹立을 위하여 이와같이 貴重한 遺構에 對한 學術調査가 期待되는 바이다.

二、校里 模塙石塔

堤川邑을 出發 忠州行 定期岬一스(一日三回)로 約二〇軒 淸風面에서 下車 淸風邑에서 江을 건너 (定期渡船場) 徒歩로 約二軒 校里의 鄕校所在의 洞里를 바라보면서 右便 골짜기로 들어서면 田中의 一屋인 校里塔洞二七番地 李明和氏宅 앞을 지나는 길로 다다른다. 여기서 다시 錦鑪山 골짜기로 約三軒(李明和氏계 問議하여야 容易한) 山中턱 큰 岩石 위에



校里 模塙石塔

몹시 破損되어 原形을 全히 알 수 없는 模塙石塔의 下層 一部가 遺存한다.

이곳서 問議한 바에 의하면(이곳 三代居住者 李明和氏 三十九歲談) 約二十五年前까지는 七層까지 完存하며 洞民들의 佛供도 있었다 한다. 그러나 그 後 日帝時 怪漢들이 塔內의 寶物을 盜取코자 이같이 無慘하게 倒壞하였다고 한다. 花崗岩을 長 三〇—四〇cm、 두께 一五—二〇cm의 方形 塙形으로 다듬어 쌓아 올린 고

一·一四m 幅四·〇五m의 基壇 위에 이보다 두께가 얇은 模塙石으로 築造한 高一·四一m、 幅二·一m의 第一塔身의 西面 一隅만이 殘存한다. 現場에는 많은 塔材가 散在하여 原狀을 알기 困難하나 그 復元을 위하여서는 慎重한 調査를 要할 것이다. 이 塔에서 西쪽으로 約五〇m 떨어진 곳에는 高約三m、 長約二〇m의 石築이 埋沒되어 있고 그 周圍에 瓦片이 散亂하고 있음은 注目되는 바이다.
以上 兩塔을 通하여 堤川을 中心한 模塙石塔의 樣式과 分布는 年代의 推定과 아울러 今後의 再調의 課題가 됨을 附言코자 한다.

仁川博物館藏 觀音坐像

李 慶 成

이 觀音像은 日本人들이 敗戰後에 버리고 간 富平造兵廠 古鐵積載場에서 一九四六年 三月에 發見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 觀音像以外에도 많은 中國 金屬美術品들이 古鐵과 더불어 山積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所謂 大東亞戰爭末期에 日本軍이 北部中國과 滿州에서 強制로 供出시킨 것들이며 筆者는 그 중에서 이 觀音像을 비롯하여 中國의 鐵製梵鐘 三點、 靑銅鼎 二點、 獸形大砲 一點을 仁川博物館으로 옮겨왔던 것이다. 또 그때 別途로 이곳에서 搬出한 것으로는 明代 것으로 보여지는 鐵製梵鐘 一口가 江華 傳燈寺에, 靑銅鼎 四點이 國立博物館에 그리고 崇禎年號刻銘이 있는 鐵製大砲가 一口는 仁川 昌榮國民學校에 다른 一口는 高麗大學 博物館에 各其 收藏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于先이 觀音像만을 紹介하는 것이다.

이 觀音像은 靑銅製로서 仰蓮重瓣台座 위에 右足を 세우고, 左足은 납히고 있는 像容으로서 台座에서 頭頂까지의 全高七〇cm 像高 五十三cm 膝幅 三十七cm이다. 台座는 二層으로 된 仰蓮瓣이며 上段은 九瓣, 下段은 十瓣으로 正面에만 鑄出되어 있고 後面에는 銘文板이 둘러져 있다



머리는 素髮이며 頭頂이 肉髻形으로 높고連珠 장식을 둘러 簡單坐한 寶冠을 쓰고있다. 앞가슴에는 華麗한 瓔珞文裝飾을 드리우고 왼쪽 어깨에서 흘러나린 天衣는 팔뚝을 덮고 아래로 드리워져서 地面에까지 이르고있

다. 또 바른쪽 天衣자락은 어깨에서 시작해서 앞가슴을 거쳐 바른쪽 무릎위의 손목을 덮고 台座위에 까지 이르고 있다. 手印은 바른손을 무릎위에서 內掌하고 아래로 드리웠으며 왼손은 땅을 짚어서 安息하는 姿勢를 보이고 있는데 이 觀音像의 台座 後邊에는

京安里二處人發 → 觀音一尊化主李

助緣僧故城女人 馬海朝登門陳氏

以下 數十人의 人名이 刻銘되어있다. 이 佛像의 年代는 이 銘文으로 는 밝힐 수 없으나 造像樣式上 明清之間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듯도 하며 現在 仁川博物館에서는 明代 佛像으로 說明되어있는데 그 理由의 하나로는 銘文의 字體가 明體로 볼 수 있다는 데에 있는듯 하다.

京畿道 華城郡 日旺面 出土의 百濟土器

尹 武 炳

昨年 九月 京畿道 華城郡 日旺面 三里에서 百濟土器 一三點이 發見되었다. 出土地는 三里에서 二里에 넘어가는 낮은 고개 못미처 길 오른쪽 傾斜地에서 珍흙을 採取하다가 發見되었다 한다. 그 場所를 알기 쉽게

말하면 京釜線 富谷驛에서 東쪽으로 約五、六百米 떨어진 地點에 該當한다.

먼저 發見遺物에 對하여 簡單히 記錄하였다.

一、항아리 五個、높이 五九cm — 一九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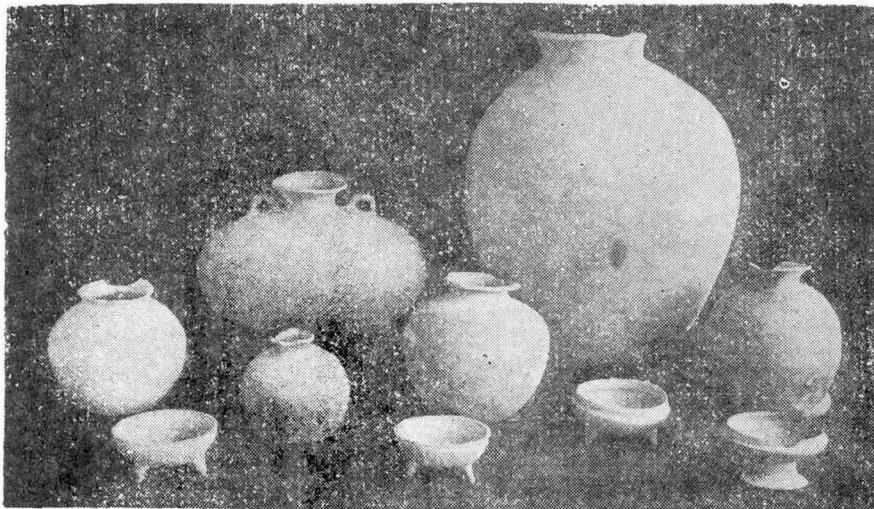
큰 것 작은 것 합쳐서 다섯個가 있었다. 器型에는 조금씩 差異가 있으나 色調는 비슷한 黑色이며 質도 比較的 단단하였다. 바닥은 등

글게(圓底) 생겼는데 가운데는 땅에 닿는 一部를 다시 平坦하게 만든 것도 있었다. 대개가 肩部 以下에 纏席文 같은 文의를 남기고 있으나 格子打型文으로 된 것도 하나 있었다. 이 土器만은 다시 그 肩部 上面에 두 줄의 陰刻 圓圈文을 둘러고 그 사이에 汗珠의 波狀文을 새기고 있다. 이 單線波文은 百濟土器에서 罕혹 볼 수 있는 것이다.

二、병 一個、

높이 一五cm

바닥을 넓적한 平底로 만들었다. 表面은 黑灰色이지만 그 바닥



百 濟 土 器